

## 대장금 스타와 한국 요리의 즐거움

[2006.12.04 18:17]

+ 확대 - 축소



[쿠키 문화] “혼또니 오이시이~!”(정말 맛있습니다)

4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의 후쿠시마민보사 로열홀에서 ‘대장금 스타와 한국 요리의 즐거움 IN JAPAN’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드라마 ‘대장금’ 열풍에 힘입어 일본인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250여 명의 일본인 참가자들은 여운계, 임현식, 박은수 등 드라마 출연자와 함께 궁중 육회와 김치 등 한국 전통 요리를 체험했다.

특히 수랴간 남자 숙수로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을 했던 임현식이 서툰 일본어로 인사말을 건네자 행사장 곳곳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진도군립예술단이 연주하는 대장금 주제가 ‘오나라’ 공연을 줄곧 흥미롭게 지켜봤다.

곤다 토미코(50·여)씨는 “신문 광고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얼른 참가 신청을 했다”며 “평소 매운 한국 음식을 좋아했는데 전통 김치를 맛볼 수 있어 행복하고,대장금 스타까지 직접 만나니 기쁨이 두 배”라고 말했다.

국민일보와 사단법인 웰컴투코리아 시민협의회(회장 최불암)가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일본 후쿠시마민보,야마가타신문,가와후쿠신보사 등 3 개 신문사가 공동 참여하는 등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민보사 니헤이 세이치 사업국장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그동안 냉랭했던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후쿠시마 현민들에게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계속 소개 하겠다”고 밝혔다.

대장금과 한국 요리의 즐거움 IN JAPAN 은 4 일 후쿠시마를 시작으로 5 일 센다이시,6 일 야마가타 시에서 각각 진행된다.국민일보 쿠키뉴스 후쿠시마=김진희 기자

## “한국에 꼭 빠져보려..” 휠체어 주부도 남편 부축 받아 참여

[2006.12.06 18:14]

+ 확대 - 축소



[쿠키 문화] 남편의 부축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온 여성부터 아내와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궁중 율회를 만드는 중년의 시장까지 ‘대장금 스타와 한국 요리의 즐거움 IN JAPAN’ 에는 열성 참가자들이 적지 않았다.

5 일 센다이 행사장을 찾은 스즈키 하즈코(52·여)씨는 “2 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데다 심장병까지 겹쳐 몸이

불편하지만 대장금 출연자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왔다”고 말했다.그는 사고 이후 병원에 가는 일 말고는 평소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편 스즈키 요시히로(53)씨는 “집까지 한 시간 넘게 걸리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며 “예전엔 한국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우메하라 카쓰히코 센다이 시장은 참가자 신분으로 표를 따로 사서 행사에 참가했다. 그는 “아내가 평소에 대장금을 워낙 좋아해 같이 보다가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며 “비디오를 빌려

지나간 방송까지 모두 봤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 판매되는 대장금 책을 사서 갖고 다니다며 가방을 열어 보이기도 했다.

아내 우메하라 나오코 씨는 “극중 장금이가 정성스레 요리하는 마음이 내가 남편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마음과 비슷하다”며 “특히 임현식과 금보라가 재미있는 부부로 출연하는데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즐거웠다”고 환하게 웃었다. 야마가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진희기자 jiny@kmib.co.kr

## [대장금 스타와 한국 요리의 즐거움] 궁중요리 배우며 강강술래 ‘덩실 덩실’

[2006.12.06 21:35]

+ 확대 - 축소



여운계씨가 6일 오후 일본 야마가타시 야마가타그랜드 호텔에서 일본 팬들이 만든 궁중 육회를 맛보고 있다.

“대장금, 반갑습니다!”

국민일보와 사단법인 웰컴투코리아 시민협의회(회장 최불암)가 함께 주최한 ‘대장금 스타와 한국 요리의 즐거움 IN JAPAN’ 한류축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후쿠시마, 미야기, 야마가타 등 일본 동북지방 3개 현을 돌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일본인 참가자들은 내내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임현식 여운계 박은수 등 TV에서만 봤던 대장금 출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궁중요리를 함께 만든다는 사실만으로도 참가자들에게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는 행사 시작 전부터 보여준 일본인들의 뜨거운 관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참가자 모집은 신청자가 몰려 시작하자마자 마감됐고,사흘 동안 연인원 15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4일 후쿠시마민보사 로열홀에서 열린 첫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궁중 육회와 김치,잡채 등 한국 전통요리를 체험했다. 특히 익히지 않은 소고기를 썰어 배와 마늘을 넣고 버무리는 궁중 육회 조리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 여성들이 5일 센다이시 센다이쿠쿠세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어로 '대장금 제일 좋아'라고 쓴 종이를 들어 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대장금 제일 좋아’라고 적힌 한국어 명찰을 만들어 가슴에 달고 온 기무라 메구미(26·여)씨는 “삼계탕을 제일 좋아하지만 처음 먹어본 육회도 맛이 특이하다”며 “평소 대장금의 열성팬이었는데 장금이를 항상 잘 챙겨주는 최고 상궁인 여운계씨가 온다기에 열린 참가했다”고 말했다.

중년 주부 등 여성뿐 아니라 중년 남성들도 적지 않았다. 외국인을 상대로 홈스테이 시설을 운영하는 시로이와 가네이치(55)씨는 “평소 한국 요리에 관심이 많아 비법을 배우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센다이시 국제센다이 호텔에서 열린 이튿날 행사는 우메하라 가쓰히코 시장이 부인과 함께 개인적으로 표를 구매해 요리 강습을 들으며 궁중 육회를 만들기도 하고,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20여명이 참가하는 등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구지 야스코(40·여)씨는 “한국어를 일주일에 두 시간씩 배우는데 10여개의 한국어 강좌가 매일 붐빈다”며 “웃사람에게 예의 바른 모습이나 맛있는 음식 등이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진도군립예술단의 연주에 맞춰 행사장에서 강강술래를 하며 한국의 전통 음악을 체험하고 돌솥비빔밥과 삼계탕 등 한국 요리법이 적힌 안내 책자를 선물받았다.

후쿠시마민보,야마가타신문,가와후쿠신보사 등 3 개 신문사가 공동 주최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6일 야마가타시 그랜드 호텔에서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웰컴투코리아 최불암 회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한류 열풍을 뜨겁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민들은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재일교포 강혜미자(36·여)씨는 “예전에 한국인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기를 펴고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드라마 등 한류 열풍으로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를 점점 이해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야마가타=글 김진희 기자, 사진 최종학 기자 [jiny@kmib.co.kr](mailto:jiny@kmib.co.kr)